

Weekly Market Report

Jan 24,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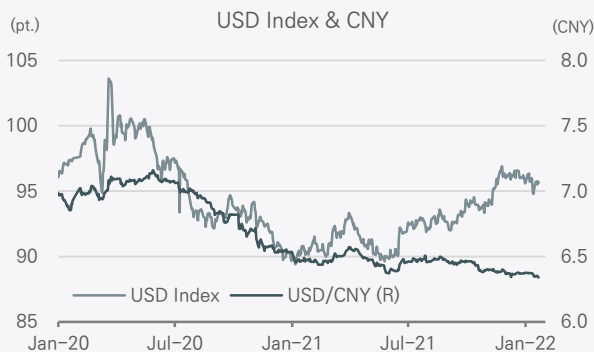
본 리포트는 해운시황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Summary

	Drybulker	회복의 실마리
	Tanker	유가는 상승, 운임은 지지부진
	Container	춘절 건인효과 일단락
	Sale & Purchase	LNG 이중연료 추진선 인기 몰이

Macro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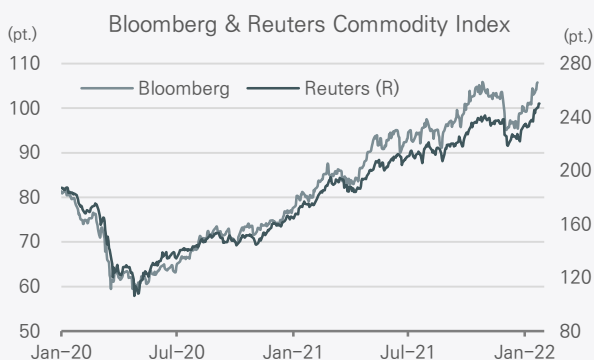
Foreign Exchange



Interes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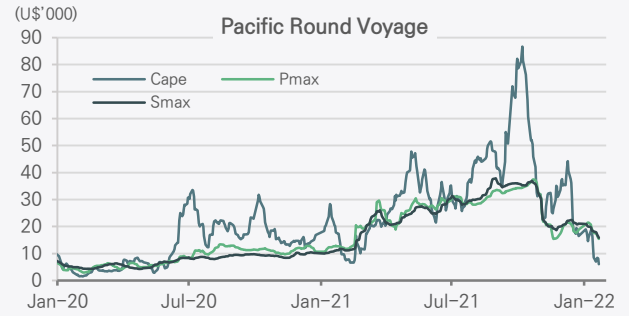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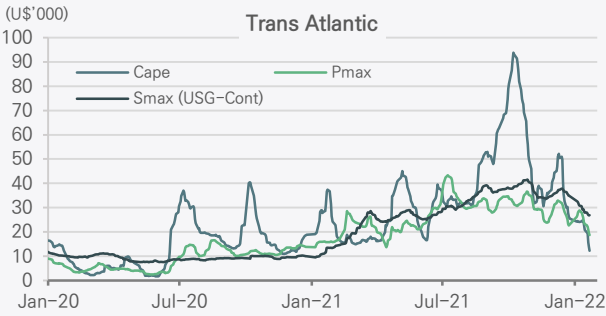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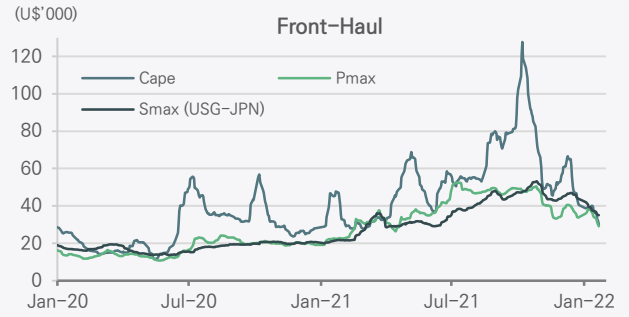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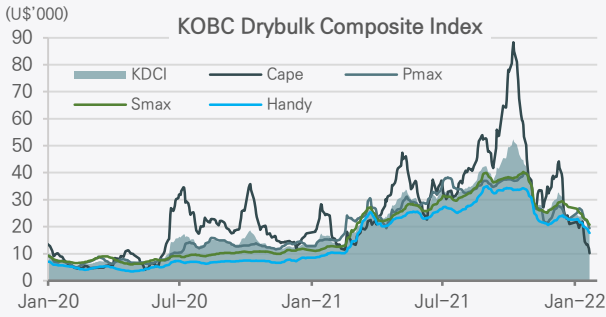


Commodity Index



Stock Market





	KDCI	Cape				Panamax				Supramax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1/21	16,867	10,163	29,988	12,288	6,038	19,415	29,100	18,740	15,400	20,788	35,057	26,857	15,848
1/14	19,909	14,506	36,875	20,750	8,500	22,598	33,980	23,150	17,690	22,818	37,243	27,986	18,150
증 감	▼ 3,042	▼ 4,343	▼ 6,887	▼ 8,462	▼ 2,462	▼ 3,183	▼ 4,880	▼ 4,410	▼ 2,290	▼ 2,030	▼ 2,186	▼ 1,129	▼ 2,302

Cape 경기부양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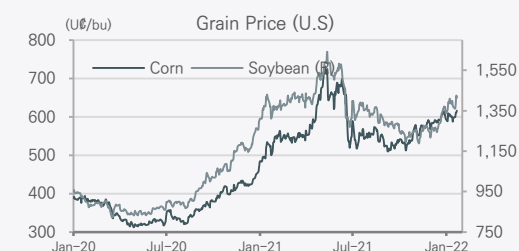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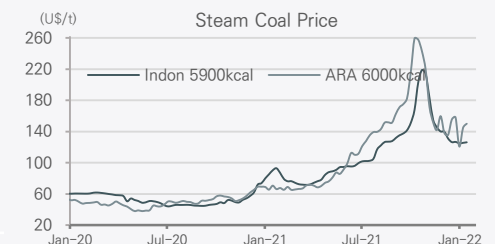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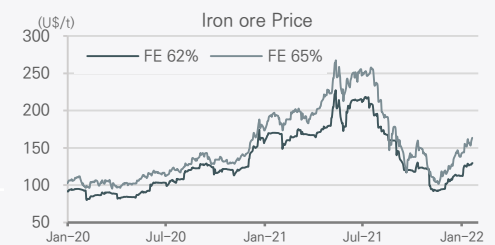
- 홍수 피해로 중단된 브라질 남부 지역의 광산 운영이 지난주 초부터 점진 재개되었으나, 신규 물동량 발생은 여전히 제한되며 하락세 지속
 - Vale, 이번 홍수 사태로 약 150만 톤의 철광석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연간 생산량 전망치는 앞서 발표했던 3.2억~3.35억 톤 유지
- 중국 춘절 연휴 중 베이징올림픽 개막 예정되어, 춘절 전후 수요부진 평년대비 장기화 전망
 - 이미 연휴대비 철광석 재고 구축을 완료한 제철소들의 수요 부진 지속되며 시장 약세 구현
- 중국정부, 경기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 및 인프라 사업 독려 등 경기부양책 조기 추진 중
 - 헝다그룹 사태 등 중국 부동산 분야의 침체로 경제 전반에 걸친 하방압력 가중. '21.1분기 18%를 상회하던 중국 분기GDP 성장률은 '21.4분기 4%에 그치며 성장 둔화
 - 이에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중기유동성지원금리(MLF), 대출우대금리(LPR) 등 정책 금리의 0.05%~0.1% 인하를 단행하고, 인프라 건설을 위한 2.2조 위안 규모 특목채 발행을 허용
- 이번주 브라질 철광석 수출 정상화 진행 및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철광석 선취 수요 유입 등에 힘입어 케이프 시황도 서서히 저점을 확보할 전망
 - 다만 본격적인 회복세는 춘절 연휴 및 동계올림픽 이후 경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P'max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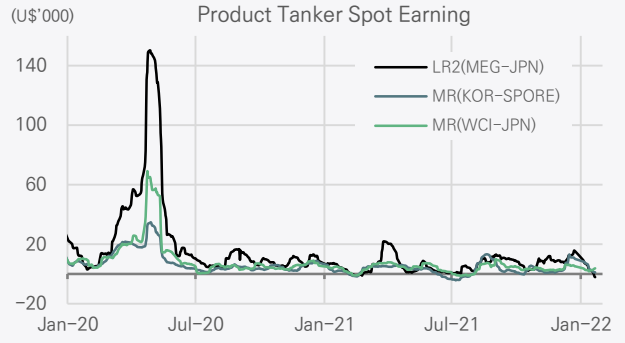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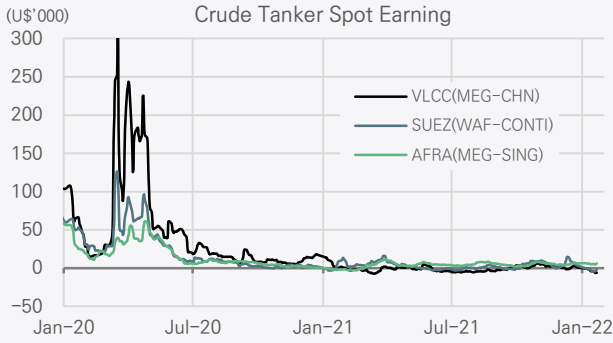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가 사실상 해제되며 운임시황 낙폭 축소 및 반등 시도
- 인도네시아 정부, 1월 20일부로 석탄 공급의무(DMO)를 이행한 광산의 수출 재개 공식 허용
 - 이번 조치로 139개 석탄업체의 수출 재개가 이루어지며 태평양 항로 반등
 - 그러나 인니 정부의 DMO 제도 강화(벌금부과, DMO 월간 이행 전환 등)로 향후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능력은 수출금지 시행 이전 대비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됨
- 남미 곡물 수출 증대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정상화 효과로 이번주 파나마스 시황 반등 전망
 - 다만 유럽 내 석탄 물동량 부진, 브라질 대두 작황 전망 하향 조정, 중국 춘절 및 올림픽 이전 수요 침체 등은 당분간 시황 상승 폭을 제한할 것

S'max 공급 과잉 지속

-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재개 등 수요 회복 요인들이 서서히 유입되고 있으나, 양대 수역 모두 누적된 선박 공급 적체가 해소되지 않으며 하락세
- USG 수역이 잠시 회복세를 나타내자 인근 수역 소재 선박들의 ballasting이 증가하며 다시 하락 전환되는 등, 항로별 수급이 서로 희석되며 수요 회복을 제한하는 형국
- 미국의 곡물 수출검역물량 증가, 인도네시아 활동성 증가 등 수요 상황 개선으로 수프라막스 시황도 서서히 저점을 확보하겠으나, 파나마스 대비 회복 속도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임
 - 주요 항로별 파나마스 대비 격차 추이 주목 요망



Tanker Spot Earning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	Aframax (MEG-SGP)	LR2 (MEG-JPN)	MR (KOR-SGP)*
WS	35.27 ▼ 1.14	58.52 ▲ 5.20	106.06 ▲ 3.62	75.71 ▼ 12.15	9.82 ▼ 0.93
TCE(US\$/day)	-5,876 ▼ 1,878	-2,081 ▲ 1,285	6,003 ▲ 818	-2,083 ▼ 4,257	1,136 ▼ 1,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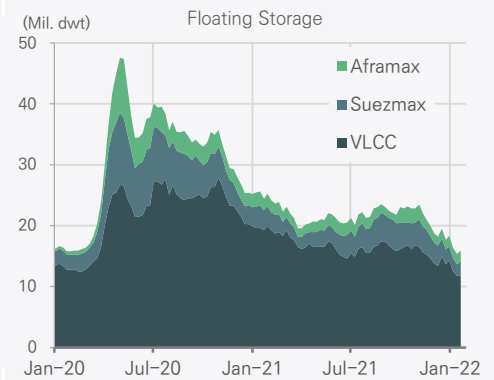
※ MR(KOR-SGP) 운임 : US\$/mt

원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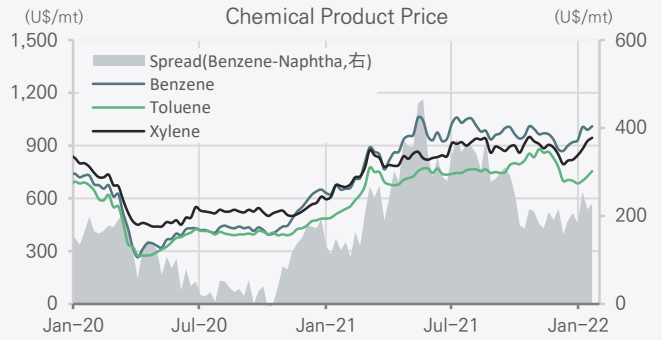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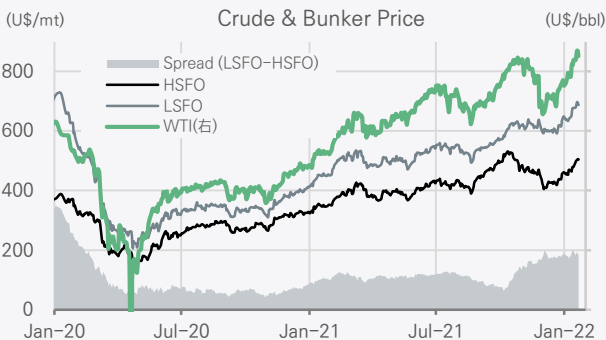
- VLCC: 전 수역에 걸친 화물 유입 감소 및 선박 공급 압력에 운임 하락세 지속
- 중국 연휴 이전 성약 활동 증가 움직임은 하락폭을 제한. 단기시황 보험세 전망. 다만 중국 정부의 연휴 기간 동안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은 시황 회복에 부담
- Suezmax: USG 화물 유입 증가 및 리비아 공급 회복에 대서양 수역 선박 수급 개선. 서아프리카/유럽 구간 WS 9.8% 상승. 다만 Spot TCE는 마이너스 유지
- Aframax: 중동 지역 가용 선박 감소 및 중국 연휴 이전 선박 확보 움직임 증가. 중동/싱가포르 구간 WS 3.5% 상승. 꾸준한 화물 유입에 단기시황 강보합 전망

제품선

- LR: 아시아 지역 납사 수요 둔화에 운임 급락. Spot TCE는 마이너스 구간 진입
- 에틸렌/납사 Spread 축소 지속(12.31일 \$272/톤→1.18일 \$143, 동북아 도착도). 비일관 생산자 BEP(\$300-350)를 크게 하회하며 납사 분해설비 가동률 하락
- MR: LR 약세 영향 및 화물 유입 감소에 동북아/싱가포르 구간 운임 8.7% 하락



Crude & Product Price



	WTI	HSFO	LSFO	Spread
가격*	85.14	504.00	687.50	183.50
증 감	▲ 1.32	▲ 23.50	▲ 10.00	▼ 13.50

※ Bunker Price : Singapore 기준

	Benzene	Toluene	Xylene
가격	1010 ▲ 20	755 ▲ 30	945 ▲ 20
Spread*	228 ▲ 12	-27 ▲ 22	163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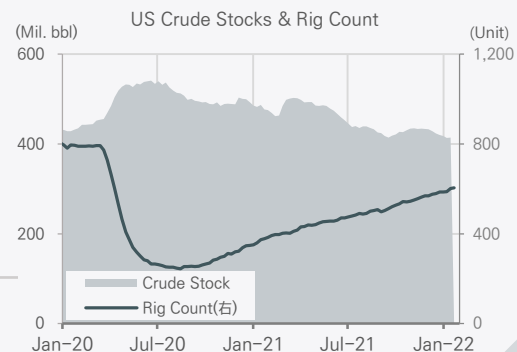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국제유가

-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및 터키 송유관 폭발 사고 발생에 주간 WTI 1.6% 상승
- 예멘 후티 반군은 UAE 석유시설과 국제공항에 미사일 공격 감행(1.17일). 이후 사우디 연합군은 예멘에 보복 공습.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 이어 불안감 고조
- 이라크와 터키를 연결하는 송유관 폭발(1.18일). 40만 b/d 이상 석유 공급 중단. 19일 운영 재개. 다만 연이은 송유관 운영 차질(리비아 등)에 공급 부족 우려 증대
-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대비 52만 배럴 증가하며 유가 상승폭을 제한. 원유 수입 증가(2.1만 b/d) 및 정제가동률 하락(1.4%)은 재고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석유제품 소비 둔화. 휘발유 재고 역시 587만 배럴 증가

연료유가

- 원유 가격 상승에 LSFO와 HSFO 가격 전주대비 각각 1.5%, 4.9% 동반 상승
- LSFO 제조 원료 부족 현상 지속에 공급 차질 우려 잔존. 그러나 싱가포르 1월 수입 증가하며 LSFO/HSFO Spread는 전주대비 6.9% 축소 ('21년 평균 \$118)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 패널리스트, GMP



항로별 운임지수

항로	금주	전주	+/-	'22평균	+/-
美서안	7,976	7,994	▼ 18	7,988	▼ 12
美동안	11,337	11,729	▼ 392	11,633	▼ 296
유럽	7,783	7,797	▼ 14	7,786	▼ 3
지중해	7,522	7,520	▲ 2	7,524	▼ 2
동남아	1,510	1,523	▼ 13	1,523	▼ 13
중동	3,575	3,695	▼ 120	3,687	▼ 112
호주	4,610	4,673	▼ 63	4,658	▼ 48
남미	9,988	10,168	▼ 180	10,160	▼ 172
일서안	341	318	▲ 23	321	▲ 20
일동안	281	288	▼ 7	282	▼ 1
한국	449	456	▼ 7	446	▲ 3
동서Africa	7,396	7,473	▼ 77	7,446	▼ 50
남Africa	6,278	6,316	▼ 38	6,338	▼ 60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용선 성약

선형	건조*	기간	\$/Day	+/-**	성약 주차
피더 700	A	13개월	28,000	▲ 4,500	1월2주
피더 1,100	A	4개월	33,000	▲ 3,000	12월4주
피더 1,600	A	2개월	80,000	▲ 44,500	1월2주
피더 2,200	B	36개월	35,000	▼ 3,000	1월2주
피더 2,700	B	36개월	42,000	▲ 4,000	1월2주
내로우빔 5,000	A	60개월	39,000	▼ 3,000	1월2주
와이드빔 5,500	A	36개월	52,800	▼ 2,700	1월1주
중형 7,000	A	96개월	42,000	▼ 200	12월2주
중형 9,000	A	54개월	64,000	▼ 1,000	12월2주

*A: '05년 이후 / B: '01~'05년 / C: '01년 이전 **직전 성약 대비

시장 동향

종 합

- '22년 3주(1.17~1.21) SCFI 종합지수 '5,053.1p' 기록. 지중해, 서일본 제외 전 항로 약세를 보이며 2주 연속 하락
- 중국, '제로코로나'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안 지역 통제 완화. 반면 베이징의 관문항인 텐진은 검역 강화 지속. 추후 확진자 발생 정도에 따라 산업 및 항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발생 전망
- 오션 얼라이언스, 오는 4월부터 42개 항로에 총 352척의 선박을 투입하는 서비스 개편 계획 발표. 특히 북미에 3개의 신규 서비스가 신설되어 총 23개 항로, 유럽/지중해 지역에 11개 항로를 운영할 예정

미주항로

- 美서안 하락 전환, 동안 2주 연속 하락
- 1월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하며 수급상황 소폭 개선. MSC는 춘절 전후로 6항차의 임시 결항을 발표하였으나 그외 선사들은 2월 선대 운영 관련 공식 발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박 공급 감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
- '21년 아시아-북미간 수출 물량은 사상 최초로 2천만TEU를 돌파하며 전년대비 20% 증가. 주요 수출국은 중국(▲22%), 한국(▲7%), 베트남(▲22%) 등의 강세가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신발(▲37%), 섬유(▲28%), 가구(▲10%) 등의 수입량 증가
- 트럭 부족 지속에 따라 당국에서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대형트럭의 면허 취득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개정 예고

유럽항로

- 유럽 항로 8주만에 하락 전환
- '22년 초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며 수급상황은 개선, 반면 지역별 체선 이슈는 지속. 최근 정체 완화를 보이던 안트워프항은 안개 영향으로 항만 운영에 차질 발생
- 영국은 일 10만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강제하던 마스크 착용 및 백신패스 적용 등을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

연근해/기타

- 동남아 항로 2주 연속 하락
- 동남아 항로, 선박량 공급 증대로 약세. 중동/인도 항로는 춘절에 따른 수요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 중
- '22년 베트남 경제성장 전망은 코로나 극복 및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에 힘입어 5.5~7%대로 예상

주요 뉴스

- 『中 주요 항만 지역, 오미크론 확산으로 공급망 차질 불가피』 (로드스타 22.1.17)
- 중국 주요 항만도시인 닝보, 텐진에 이어 다롄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여 춘절 이전 공급망 병목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증가. 중국 내 변종 확산으로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춘절 직전 물량 밀어내기 영향으로 향후 2~3주 간 공급망 차질은 더 심해질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금번 동계 올림픽 종료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지 포워더들은 그 시점까지 공급망 차질이 계속될 것이라 경고
- 『美 롱비치 항만, '21년도 기록적인 처리량 달성』 (로이드리스트 22.1.20)
- 롱비치 항만의 '21년 처리량은 소비자 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속에 최고치를 경신. '21년 처리량은 938만TEU(전년비 ▲15.7%)로 수입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458만TEU, 수출은 2.6% 감소한 144만TEU, 공컨테이너는 27.5% 증가한 336만TEU를 기록. 항만 관계자는 이번 결과의 배경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 지출 패턴이 서비스에서 가정용 사무용품과 가구, 운동기구 등으로 변했기 때문이라 설명

◦ 전 선종에 걸쳐 발주 활발, LNG 이중연료 추진선의 약진

- 건화물선: NYK 180K DWT LNG 이중연료 3척 발주

신조선

- 컨테이너선: Eastern Pacific 7,900 TEU LNG 이중연료 3+3척 / Sea Consortium 7,000 TEU 2척 발주

- 가스운반선: MOL 174K CBM 1척 / Shenzhen Haihong 6,300 CBM 1척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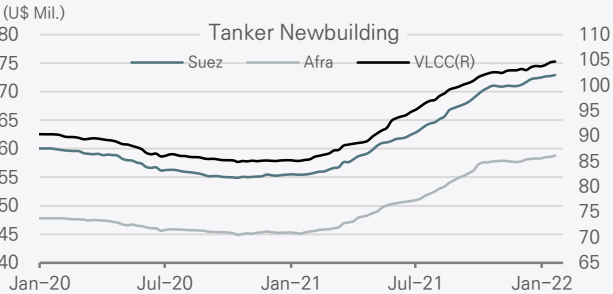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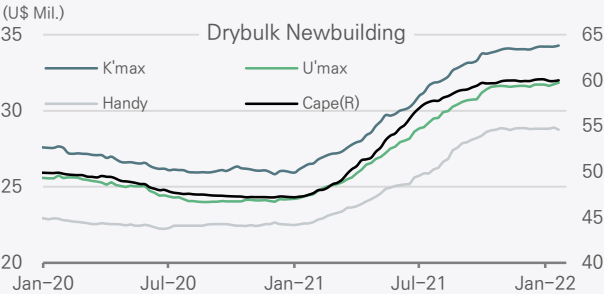
- 제품운반선: Asiatic Lloyd 50K DWT 2+2척 / 차량운반선: Hoegh Autoliners 9,100 CEU LNG 이중연료 4+4+4척 발주

중고선

◦ 건화물선, 시황 약세 지속되며 중고선 거래 침체 / 유조선 중고거래 위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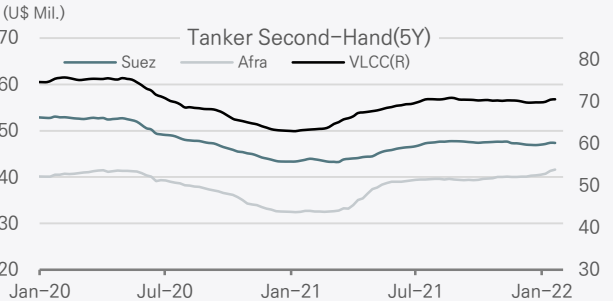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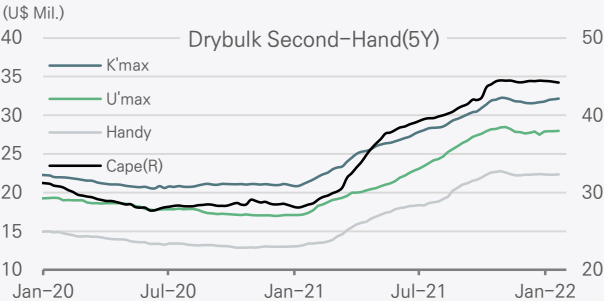
Newbuilding & Resale Pric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2평균	'21평균	금주	+/-	'22평균	'21평균
Drybulk	Cape	180K	60.00	▲ 0.08	59.95	55.18	58.30	▼ 0.01	58.30	53.02
	Kamsarmax	82K	34.28	▲ 0.07	34.23	30.78	38.97	▲ 0.21	38.83	33.18
	Ultramax	64K	31.84	▲ 0.09	31.74	28.54	35.17	▲ 0.08	35.09	30.58
	Handy	33K	28.75	▼ 0.15	28.82	25.96	28.65	▲ 0.08	28.60	25.24
Tanker	VLCC	310K	104.71	▲ 0.15	104.44	95.04	99.05	▲ 0.38	98.73	94.02
	Suezmax	160K	72.96	▲ 0.18	72.81	63.74	68.55	▲ 0.04	68.47	63.40
	Aframax	105K	58.81	▲ 0.27	58.63	51.88	56.03	▲ 0.22	55.78	5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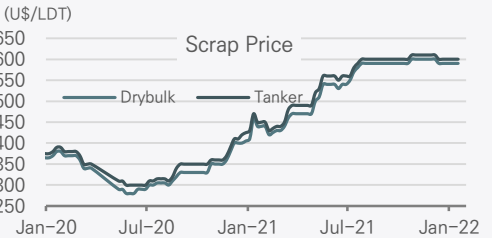
Secondhand Price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2평균	'21평균	금주	+/-	'22평균	'21평균
Drybulk	Cape	180K	44.22	▼ 0.09	44.31	38.08	32.18	▲ 0.04	32.16	27.54
	Kamsarmax	82K	32.16	▲ 0.09	32.08	27.60	23.06	▲ 0.10	22.97	19.46
	Ultramax	64K	27.96	▲ 0.01	27.95	23.40	20.83	▲ 0.07	20.78	16.54
	Handy	33K	22.37	▲ 0.05	22.33	18.52	15.49	▼ 0.06	15.53	12.29
Tanker	VLCC	310K	70.43	▲ 0.09	70.20	68.22	46.24	▼ 0.03	46.12	45.96
	Suezmax	160K	47.37	▼ 0.04	47.31	45.99	31.13	▼ 0.06	31.10	30.59
	Aframax	105K	41.59	▲ 0.24	41.22	37.58	26.73	▲ 0.18	26.44	24.03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2평균	'21평균	금주	+/-	'22평균	'21평균
Bulker	570	▲ 20	557	507	590	-	590	533
Tanker	580	▲ 20	567	517	600	-	600	544



KOBC Drybulk Panelists

	ILDO Chartering		Jangsoo Shipping		Flaship		Ascent Bulk
	Daesang Shipping		Basim Chartering		Max-Bridge		Greatwall International
	Ace Chartering		Kaya Shipping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Good Turn Transportation		Evershine Consulting		Ocean Robin Shipping
	Howe Robinson Singapore		OHY Shipping		BNS Shipping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Forocean Shipbroking		Hanwon Maritime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Kims Maritime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SSY London
	Haidely Shipping		STL Shipping		HIT Marine Company		Reshamwala Shipbrokers
	Seasure Shipbroking		Mcquilling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SSY London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Seoul Line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Euroline Global
	Tradlinx		Taewoong Logistics				